

“민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. 한가위, 나누면 행복해집니다”



보도자료

- ▶ 2009. 9. 23. 배포
- ▶ 총 2 쪽 (사진없음)

▶인적자원개발과장 시민석
▶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 김태령
T E L : 6902-8207
E-MAIL : ktr2936@molab.go.kr
F A X : 503-9538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보도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생계형 범죄자 “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” 제도 시범실시 - 노동부, 대검찰청 10월 1일부터 공동 시행 -

- 노동부와 검찰은 작년 하반기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서민의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생계형 범죄자가 실업자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을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
- 이 제도는 생계형 범죄자 중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실업자를 선별하여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고,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
- 이 제도는 '09.10.1.부터 '10.3.31.까지(6개월간) 우선 전국 4개 지역(수원, 대전, 광주, 울산)에서 각 30명씩 120명 이내의 규모로 시범운영을 할 방침이며,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
- 시범실시 절차는, 우선 시범지역 지검에서 “시범실시 지역의 생계형 범죄자 중 기소를 유예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실업자”를 선별하여 시범지역 노동관서에 통보를 하면,

○ 시범지역 노동관서는 당사자와 상담을 통하여 실업자 직업훈련 중에서 적합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알선해 주고, 훈련 수수료에는 취업알선도 하게 된다

- 노동부(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)는 “이번 조치로 생계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통하여 구제를 받고, 취업에도 성공하여 안정된 생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

<참고 : 생계형 범죄자 직업훈련 실시 절차>

